

한국과 몽골 청소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파트너십 : 21C 비전과 희망

한국과 몽골의 청소년정책 및 사업 소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쌍방향 차세대 파트너십 강화

한국과 몽골 청소년문제해결을 위한 정부-기업-NPOs 파트너십 강화



해금



모링호르

21세기, 몽골 청소년의 비전은 한국 청소년의 비전과 연결

21c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 한국 몽골 청소년과의 파트너십은
양국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

몽골문화, 왜 원더풀한가?

자연과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온
몽골 유목민의 지혜는 깊은 감동

왜 몽골은 젊은 나라인가?

몽골의 14세 이하 청소년인구는 31.5%로
청소년인구가 증가추세

몽골은 왜 유라시아의 플랫폼인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국제철도역을 가지고 있는 가교국가



시베리아횡단열차 Trans-Siberian Railway(TSR) / 몽골횡단열차 Trans-Mongolian Railway(TMGR) / 중국횡단열차 China Transit Railway(TCR) / 만주열차 Manchuria Railway(TMR)

출처 : 희망레일(2021) <http://www.railhope.com>

21세기 비전과 희망!

한국과 몽골 청소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지금 이야말로, 21 세기 유라시아를 주도하는 한국과 몽골의
청소년 역량 개발이 필요한 때이다



분단된 한국청소년들도 몽골 청소년들과 함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참여

유라시아는 전 세계의 GDP 60% 를 차지하고, 전 세계인구의 절반이 넘게
살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내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비전을 가진 대륙

한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1>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청소년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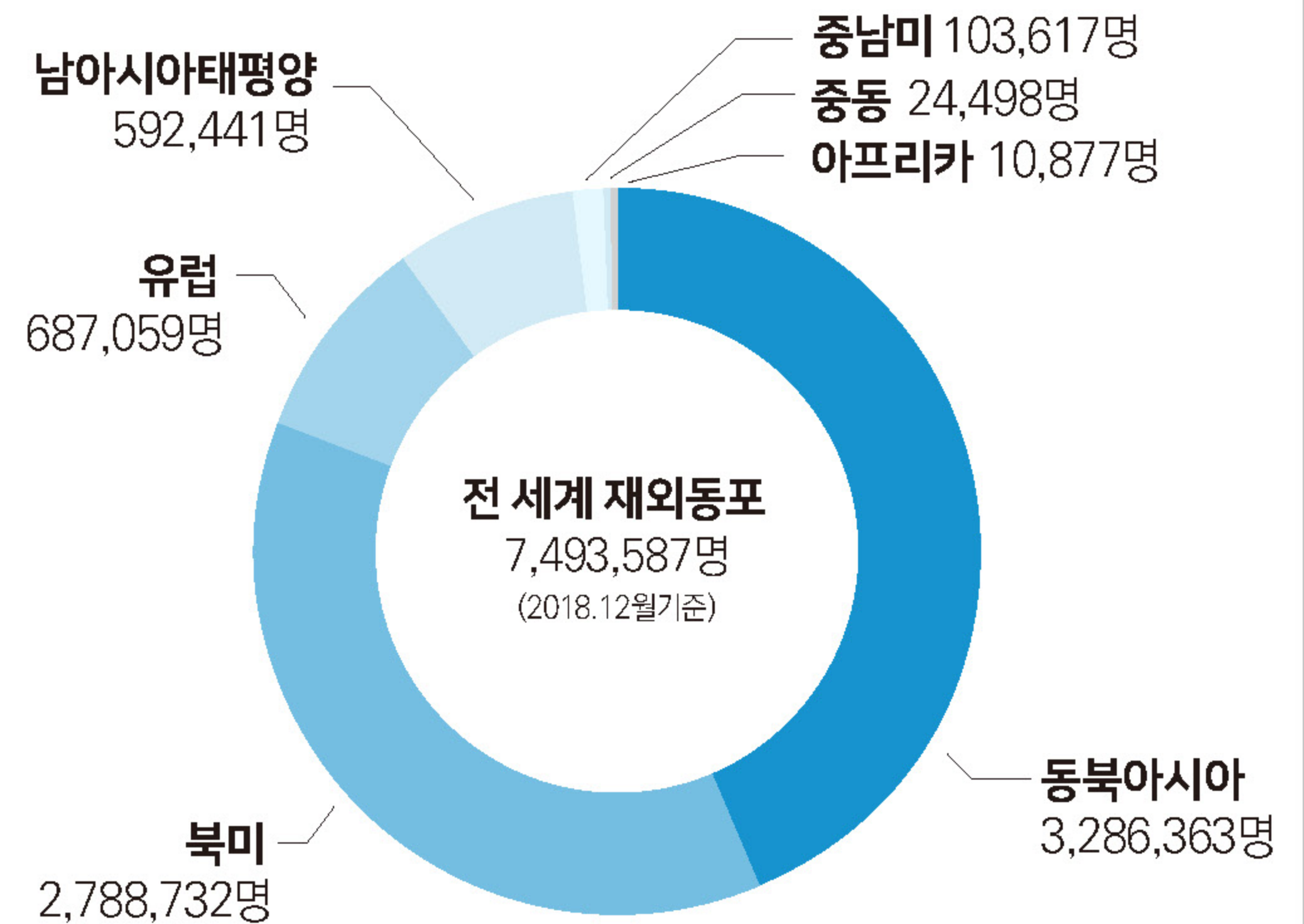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전 세계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청소년 수



재외동포 청소년 인구 약 200만 내외로,
전 세계 한국학교 학생 수는 14,040명,
한글학교 학생 수는 100,063명(2017년 기준)으로 파악

2>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은 주로 재외국민의 한국어 교육 지원과 외국국적 동포의 한민족 유대감 유지와 한국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하여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에서 수행

한국의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위기 청소년 : 빈곤청소년, 가출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및 사업

✓ 「청소년안전망(CYS-net)」 구축 운영

- 전화상담, 구조,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 2019년 전국 17개 시도 및 212개 시군구의 **236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168,377명의 위기청소년에게 3,279,408회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연계

✓ 「1388 청소년지원단」 운영

의료, 법률, 자활 등의 민간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

✓ 「청소년긴급전화 1388」 운영

✓ 「청소년쉼터」 133개소 운영

✓ 「청소년동반자」 1,313명이 활동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

✓ 인구절벽 시대 한명의 청소년도 낙오하지 않도록 위기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

- 보호종료 청소년에 주거 우선 등 지원강화
-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위기 개입과 긴급구호

한국의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사업

코로나19와 비대면 활동의 증가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 부각

- 한국은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으나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 사이에서 이용능력과 활용의 수준에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새로운 영역으로서 통합적 정책 개발**이 필요

- 예방교육의 경우 여러 부처에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이 우려됨
-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계획 수립과 운영이 필요함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술중심 접근에서 **인간과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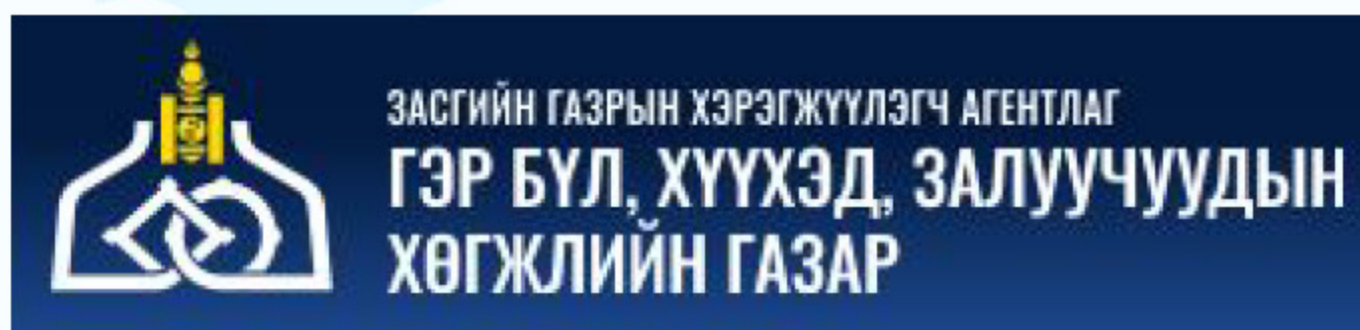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는 기술의 활용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가, 최근에는 점차 공동체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몽골의 아동청소년 간략한 정보



- ✓ 몽골의 14세 이하의 청소년 인구 구성비는 31.5%로 매우 높음(2020)
- ✓ 학대 피해자, 아동보호 및 서비스 기관(2020)
 - 19개의 임시 쉼터가 있고 13개의 서비스 센터가 운영 중임
- ✓ 아동 헬프라인 108 서비스 센터
 - 2018년 1209건, 2019년 896건, 2020년 453건의 긴급 지원 전화를 받았음
- ✓ 청소년개발법(주의회는 2017승인)
 - 최초의 법적문서로서 청소년발달을 지원하고 보장한 것은 역사적 발전임
- ✓ 청소년 개발 센터
 - 21개 도, 국회 의사당 9개 지구 및 5개 섬에 105명의 직원을 두고 설립됨



몽골의 가족, 아동 및 청소년개발기관

몽골 청년 현황과 정책

총인구 3,357,542명 / 청년인구 1,030,709명(15~34세 인구구성비는 30.7%)

청년들이 응답한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 실업, 부패, 교육, 빈곤, 경제, 생활비, 인플레이션

실업 사유

- ✓ 전문 역량/고등 교육 훈련의 질
- ✓ 업무 경험 부족
- ✓ 개인적인 인맥이 없음



청소년 정책

- ✓ 2017년에는 청소년에 관한 새로운 법률로 청소년 개발법이 시행되었음. 제5조에 따라 다루는 분야는 자기 계발,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및 과학, 건강 관리, 고용, 청소년을 위한 안전 및 개발 환경
- ✓ 이 정책은 주로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기술 및 의사 소통을 향상시키는 능력 측면에서 청소년 개발에 중점을 둠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지금이야말로, 21세기 유라시아를 주도하는 한국과 몽골의 청소년 역량 개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21세기 비전은 청소년, 차세대와 연결되어 있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서
차세대 주역 청소년과 연결이 되어야하는 것은 필수적임



한국과 몽골 청소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파트너십 : 21C 비전과 희망

출처 | 웨비나 자료집(20210719). 한국과 몽골 청소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국제 웨비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몽골국제대학교, 가족, 아동 및 청소년개발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지연 박사, 장근영 박사, 김경준 박사, 이유진 박사, 김영지 박사

몽골국제대학교 | Dulguunsaran Amartuvshin

몽골의 가족, 아동 및 청소년개발기관 | Munkhgerel Munkh-Amar

몽골국제대학교 CSR센터 | 김도영 대표

